

석회석, 활용 가능성 “무궁무진”

조선중앙TV, 경제적 중요성 강조 ... 양계사료에서 화학 첨가제까지

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흰 석회석은 경제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와 도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조선중앙TV는 일반 석회석은 수억년 전에 죽은 동물의 뼈가 덧쌓여 생겨난 것으로 알칼리성이 강하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지만 흰 석회석은 바닷물에 의해 정제된 순수한 탄산칼슘이어서 순도와 백색도가 100%에 가까운데다 화학적으로 중성이라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11월14일 소개했다.

특히, 북한의 북부 고산지대에 많이 매장돼 있는 흰 석회석은 조성이 조가비와 같고 유해 성분이 없어 닭 공장에서 동물의 뼈대신 칼슘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, 흰 석회석을 섞은 사료를 먹은 닭은 건강하게 빨리 자랄 뿐 아니라 질 좋은 계란을 생산한다고 보도했다.

또 흰 석회석은 화학적으로 중성이고 유해물질이 없어 치약 등 고급 화장품을 만들 수 있으며 비닐제품, 타이어와 신발밑창 등 고무제품, 유리, 페인트, 종이, 의약품 생산에서도 기본원료 또는 중요한 첨가제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.

순수한 석회석은 흰색이며 불순물이 적게 들어있는 것은 회백색, 회색, 암회색이며 포함된 불순물에 따라 노랑, 적갈색, 푸른색, 어두운 회색 등을 띤다.

<화학저널 2004/11/23>